협력에 의한 조화를 가속화해 동북 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급속히 추진하자

제 15 회 일중한 3 개국 지방 정부 교류 회의 연설

길림성 정부 외사변공무실 주임 장 보상

한마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15 회 일중한 3 개국 지방 정부 교류 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얻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동북 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여러분의 훌륭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장소를 빌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길림성을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길림성의 개황, 일본이나 한국과의 협력 상황 그리고 동북 아시아의 협력을 더욱 추진하기 위한 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길림성 개황 및 일본 , 한국과의 교류 상황

길림성은 중국 동북지방의 중부에 위치하며 중국 국내의 위치는 주로 다음 세 개의 「약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의 면적은 중국의 국토 면적의 1.95%를 차지하는 18.74 만 km^2 이며, 2012 년 현재 인구는 중국 총인구의 2.03%를 차지하는 2750.4 만명이며, 2012 년 GDP 는 중국 전체의 2.30%를 차지하는 11937.82 억원(元)입니다.

첫 번째로, 길림성은 중국의 중요 공업 거점이며, 자동차 제조업과 석유화학 산업은 길림성의 상위에 있는 두 개의 기간산업 입니다. 장춘 궤도 객차 공사(長春軌道客車公司)는 아시아 최대의 고속 철도용 객차 메이커이며 제품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 길림성의 광전자 기술도 진행되고 있어 신 에너지, 신소재 및 에너지 절약・환경보전 기술을 대표 하는 전략적 신흥산업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길림성은 중국의 중요 상품화 식량의 생산 거점입니다. 길림성은 세계적인「콘(corn) 벨트」에 위치하며, 중국 전 국토의 경지 면적의 1/25 을 차지하고 중국 상품화 식량의 1/10 을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 길림성의 식량 생산고는 3343 만 t 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산물 상품화율, 식량의 출하량 및 일인당 육류 보유량은 오랜 세월에 걸쳐 중국 각 성 중에서도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길림성은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이미 광산 자원 115 종류의 매장이 확인되었으며 35 종류의 매장량은 중국 전 국토에서 상위 5 위에 들며, 11 종류의 매장량은 중국에서도 제 1 위에 랭크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최대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고품질 미네랄 워터의 수자원을 가지며, 허용 취수량은 하루 40 만 m^3 이며, 전국에서도 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길림성은 질 좋은 약용 인삼 산지이며, 생산고는 전국의 85%, 세계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길림성에는 풍부한 자연 환경이 있으며 성 전체의 삼림 점유율은 43.5%이고, 동부 지역의 삼림 점유율은 80%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중국 10 대 명산」의 하나인 장백산은 길림성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며,「천지」나「지하 삼림공원」등의 독특한 자연 경관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섯 번째로, 길림성은 투자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 산업 이전이나 투자 협력에 있어서도 우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 성에서는 외국 기업에 의한 투자를 지원하는 일련의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문강 지역의 협력 개발로 실시된「전국에서 앞서가는 신정책의 시행」은 중국 정부가 길림성에게 준 최대의 권한이며, 정책과 제도 체제의 양면에서 혁신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국내외의 투자가를 위해서「사업의 유치, 사업의 안정, 사업의 확대」라고 하는 뛰어난 투자환경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성과 일본 , 한국과의 교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일본은 당성에 있어서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2012 년 당성과 일본의 양국간 무역액수는 28.2 억 미국 달러에 이르며, 당성에 있어서의 양국간 무역액 중에서도 두 번째로 큰 숫자가 되었습니다. 2013 년 상반기에 있어서의 양국간 무역액수는 13.7 억 미국 달러입니다. 2013 년 6 월 현재 성 전체 합계로 218 개사의 일본계 기업이 있으며 목재 가공, 농업 부산물이나 식품의 가공, 자동차 부품의 제조 등의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2 년, 일기(一汽)는 토요타와 전면적인 제휴 계약을 체결해, 「일기풍월(一汽豊越)」사업을 대표로 하는 완성차사업의 건설이 진행되었습니다. 과학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의료 기술과 의료기기, 오수의 회수와 처리, 교사와 유학생의 상호 파견 등의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당성의 여섯번 째로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2012 년 길림성과 한국의 양국간 무역액수는 6.87 억 미국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2013 년 1 월부터 8 월까지, 당성과 한국의 양국간 무역액수는 4.53 억 미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2013 년 6 월 현재, 성 전체에서는 합계 726 개사의 한국계 기업이 있으며, 대내 투자의 나라별 위치로는 제 1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POSCO 나 금호아시아나 그룹등 대기업은 모두 길림성에 진출하고 있거나 또는 진출을 계획중이며 그 사업 분야는 철강, 농업 부산물의 가공, 자동차 부품의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당성과 한국은 문화, 관광, 청소년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쌍방은 매년, 「동북 아시아 문화 예술 위크」나 「금호아시아나배 '말해보자 한국어 대회'」등의 이벤트를 개최해 교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동북 아시아의 교류의 대동맥을 개통해, 창춘 · 길림 · 도문강의 전략에 근거해, 지역내에 있어서의 「사람」, 「물건」, 「금」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 유통 운동을 실현한다**

길림성은 동북 아시아 지역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며 지리적 우위성과 대외 개방 플랫폼에 있어 현저한 우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에 있어 길림성은 중국의 동북 · 화북 지역, 북한, 일본, 한국, 몽고, 극동 러시아 및 동 시베리아 지구로부터 완성되는 동북 아시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동부와 남부는 러시아와 조선에 접하고, 길림성 최동단의 혼춘 · 방천으로부터 일본해까지는 불과 15 km 입니다. 또, 러시아의 자르비노(Zarubino)항까지의 도로 거리는 73 km, 철도 거리는 81.5 km 입니다. 독특한 지리적 우위성으로 길림성은 동북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협력과 도문강 구역에 있어서의 협력 개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 년 8 월 이후, 중국 정부는 장춘 · 길림 · 도문강을 개발과 개방의 선구적 지역으로 하는 중국 도문강 지역 협력 개발 계획 개요를 인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춘 · 길림 · 도문강을 개발과 개방의 선구적 지역으로 건설하는 것이 국가 전략에 세워진 이후 길림성은 장춘 · 길림 · 도문강을 개발과 개방의 선구적 지역으로서 일관되게 지역 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중점으로 자리잡아 주변국과의 다국간 수송, 이주나 통관 등의 건설과 추진의 강화에 힘을 써 왔습니다. 또, 중국과 몽고, 중국과 러시아간의 육로 이주를 중계점으로 해, 철도와 도로를 접속하는 것으로, 일본과 한국에도 액세스 할 수 있는 동북 아시아 지역의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을 제휴시킨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혼춘-러시아의 자르비노(Zarubino), 일본의 니가타, 혼춘-속초, 혼춘-부산 등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을 제휴시킨 국제 루트의 운영 추진에 힘을 씀과 동시에 「사람」과「물건」이 흐르는 국제적인 대동맥의 구축에 모두 노력 하고 있습니다. 각방면의 오랜 세월에 걸친 노력에 의해 지역에 있어서의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을 제휴시킨 물류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이미 뛰어난 현실적 기반과 발전의 조건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최대한의 활용,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충분히 실현하여, 원활한 물류

네트워크의 확보를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공급원이나 세제 등에 있어 각종 조치의 정비도 하루하루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 년 12 월, 중국의 19 번째 보세 지구로서 길림성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수준의 종합 보세지구--장춘 흥륭 종합 보세구(長春興隆総合保税区)가 정식으로 인가되었습니다. 머지 않아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작년 4 월 중국 정부는 길림성 혼춘시에 중국 도문강 구역(혼춘) 국제 협력 모델 지구를 설립하고 국제 산업 협력구와 국경 무역 협력구를 중점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인가하고, 관련 지원책을 발표하여 동북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종합형 교통 허브 및 국제적인 상업・무역의 물류센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각종 대외 협력 플랫폼이 다양화하고 정비되는 것에 따라, 국제 산업의 이전과 국외로부터의 투자 유치와 수입의 매체로서 당성은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당성의 전면적인 대외 개방의 구도는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3, **동북 아시아 성장의 대형 플랫폼을 더욱 확대해, 동북 아시아 박람회를 기초로 동북 아시아의 산업진흥과 비즈니스 교류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중국-동북 아시아 박람회는 중국의 국무원이 인가하고, 상무부,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 및 길림성 인민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부수준의 박람회이며, 유일하게 동북 아시아 6 개국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로 열린 국제적인 종합 박람회이기도 합니다.

동북 아시아 박람회는 제 1 회 때부터 9 년간 총계 240 만명이 입장했고 세계 100 개 이상의 나라나 지역으로부터 50 만명 이상의 사업가들이 방문한 것 이외에, 각국의 차관 이상의 요인 800 명 이상, 세계 톱 500 개 기업과 대기업 , 다국적기업 400 개사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또, 상품의 계약액은 합계 69.3 억 미 달러에 이른 것 이외에, 합계 2169 건의 투자 사업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 사업의 투자 총액은 1 조원을 웃돌았습니다.

9 년간의 급성장에 의해, 동북 아시아 박람회는 동북 아시아 지역의 각국이 경제 무역이나 교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계로 열린 중요한 플랫폼, 중국 동북지방의

구공업 거점을 대외 개방과 경제 무역의 협력 거점화 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 길림성의 대외 개방과 장춘 · 길림 · 도문강의 개발 개방 전략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 각국 기업의 세계 진출과 지역의 특색을 전달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어, 동북 아시아 지역의「평화, 화목, 협력」및「의견 일치, 공유, 윈 윈」에 있어서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중국-동북 아시아 박람회」는 10 번 째 개최를 맞이합니다. 동북 아시아 및 세계 각국 각계의 관계자가 이 대형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각각의 뛰어난 산업이나 제품을 마음껏 전시하고 각사가 서로 좋은 자극을 받아서, 더욱 높은 차원의 비즈니스 교류와 산업의 진흥을 추진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4. 협력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의 몇가지 제언

현재, 경제의 글로벌화 경향이 더욱 더 현저하게 되어, 지역경제는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큰 구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1 세기는 아시아의 세기이며, 동북 아시아 지역의 경제는 아시아 전체, 더욱이 전세계의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범주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동북 아시아의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 아시아 지역 각국이 일치단결하여 함께 행동하고, 협동하고 이견을 좁혀, 동북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이 한층 더 확대 실현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경제분야의 협력을 계속해서 전면적으로 확대시켜 가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 성숙한 각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바이오, 전자 정보, 신소재, 첨단 기기의 제조등의 산업을 중점에 두고, 일본이나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있어서의 우위성을 충분히 활용해, 산업이나 기업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공, 폴리에스테르, 바이오 · 환경보전, 바이오 의약, 인텔리전트 · 시스템,

네트워크, 탄소섬유, 고분자 재료, 레이저 제품, 지능 로보트, 에너지 절약・에코 설비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협력 관계를 쌓아,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문화나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를 보다 깊게 계속해서 전개해 가는 것입니다.

문화는 나라의 심볼이며, 민족의 상징입니다. 문화 교류는 서로의 이해가 깊어져 상호 신뢰를 강고하게 하고, 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아무도 대신하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사이에 있어서의 문화, 과학기술, 스포츠, 관광 등 사람들의 내면이나 문화면에서 교류 강화에 힘을 쓰는 것은 경제분야 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큰 보장이 됩니다.

향후 관계하는 나라나 지역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산업의 공동 개발,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는 문화 예술 단체나 청소년 교류 단체의 상호 파견, 크로스 보더 투어리즘의 루트 개설, 송화강 국제 관광 리조트 에리어의 건설, 아웃소싱(outsourcing)・서비스의 확대, 장춘・동북 아시아의 소프트웨어・아웃소싱(outsourcing)・에리어의 건설, 여러가지 폭넓은 분야에 있어서의 교육 협력과 학술 교류 실시 등, 더욱 교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은 당성과 돗토리현, 시마네현, 한국의 강원도가 우호 관계와 자매 도시 관계를 체결한지 20 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 교류 등이 더욱 확대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 오늘 저희들 일중한 3 개국 자매 도시의 대표자가 아름다운 도야마현에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길상부뇨, 임무산미‘吉祥富饒、林茂山美’」의 8 개 문자로 이번 도야마현에 있어서의 일중한 3 개국 지방 정부 교류 회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 하고 싶습니다. 또, 이 8 개 문자로 말을 계속한다면,「 길림상무, 부산요미 ‘吉林祥茂、富山饒美’」가 되겠지요.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과 길림성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를 위해서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크게 공헌을 하신 도야마현, 자치체 국제화 협회, 한국 전국 시도 지사 협의회, 중국 인민 대외 우호 협회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